

재단의 지원을 받았던 협력기관과 장학생, 그리고 아산상 수상자들을 찾아 이들의 현재 모습을 소개합니다.

50년 한결같이 이어온 사랑의 인술



배현정 전진상의원 원장이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전문팀과 함께했다. 왼쪽부터 강귀엽 간호사, 노상미·정소영 전문의, 배현정 원장, 오정기 간호사.

금천구 시흥동의 오래된 다가구 주택가, 좁은 골목길을 따라가면 고풍스러운 붉은 벽돌의 전진상의원·복지관이 나타난다. 색 바랜 벽돌 건물과 초록 글씨 간판에 차곡차곡 세월이 쌓이는 동안 20대의 벨기에 간호사 마리헬렌 브라쇠르는 여든을 바라보는 전진상의원 배현정 원장이 됐다. 오로지 소외된 이웃을 섬기기 위해 한국에 온 그는 달동네 판자촌 주치의로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9년 제21회 아산상을 수상했다.

그 후 13년이 흐르며 전진상의원은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거듭했다. 지역아동센터와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를 개설하고 전문인력도 늘었다. 2020년에는 전진상의원 설립 45주년을 맞아 건물을 증축하고 내부 시설 재정비를 완료했다. 전진상 공동체의 45년 발자취를 담은 「전진상에는 유쾌한 언니들이 산다」도 출판했다. 하지만 ‘가난한 이들 속으로 들어가라’는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요청은 여전히 전진상의원·복지관의 변치 않는 초심이다.

달동네 주치의 50년

“올해 10월이 한국에 온지 만으로 50년입니다. 참 오래됐죠. 그래도 항상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 달라진 건 없어요.”

벨기에 출신의 간호사 마리헬렌 브라쇠르는 1972년 한국 땅에 들어왔다. 국제가톨릭형제회(AFI)에 입회해 소외된 이웃을 섬기기로 서원하고 낯선 나라 한국으로 온 것이다. 한국 AFI 회원들에게 한국식 이름 ‘배현정’도 선물 받았다.

의료보험제도가 없던 시절, 질병과 빈곤이 악순환되는 판자촌 사람들의 어려움을 안타까워한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요청에 그를 비롯한 두 명의 한국 AFI 회원이 응답했다. 간호사인 배현정, 약사 최소희, 사회복지사 유송자 세 사람은 금천구 시흥동에 자리잡고 병원과 약국, 복지관을 통합해 '전진상 가정복지센터'를 설립했다. '전진상'은 국제가톨릭형제회의 '온전한 자아봉헌(全), 참다운 사랑(眞), 끊임없는 기쁨(常)'의 정신을 담았다.

초창기에는 산동네 구석구석 중환자들과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진료와 무료진료소를 운영했다. 돈이 없어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해주고, 무료 유치원과 공부방을 운영했다.

지역사회에 밀착해 있는 만큼 24시간 상주하며 환자를 돌볼 의사가 필요했다. 배현정 원장은 의대에 편입해 1988년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매일 진료를 하면서 말기 암 환자를 위한 가정 호스피스 활동을 시작했다. 완치는 불가능하지만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줄여 남은 시간을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사명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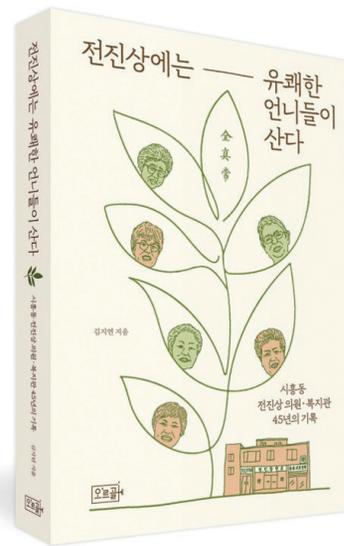
2008년에는 10병상을 갖춘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를 개설하고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와 봉사자로 구성된 전문팀도 구성했다. 서울시 최초의 호스피스 전문의료기관의 시작이었다. '전진상'이라는 이름 아래 의원, 약국, 복지관, 아동 돌봄, 가정 호스피스까지 더해지며 전진상의원·복지관은 의료와 복지를 함께하는 진정한 지역사회의료사회복지 모델이 됐다.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를 약속하며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를 열고 14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우리 같은 호스피스 모델은 많지 않아요. 호스피스는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환자와 가족들이 잘 사는 것, 그게 목적입니다. 임종 전까지 통증을 줄여주는 데 그치는 단순한 것이 아니지요."

배현정 원장에게 호스피스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단계를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적극적인 돌봄 치료다. 물론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와 초조해하는 가족들을 지켜보는 일이 결코 쉬울 리가 없다. 그에게 '고쳐 달라'고 호소하는 환자와 가족들의 눈물에 가슴 아플 때도 많다. 정말 드문 일이지만 안락사를 원하는 환자도 있다. 그 고통을 이해하기에 배현정 원장은 "밤이든 낮이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같이 있을게요"하고 약속한다. 살리지는 못해도 함께 살 수 있다고, 함께 살자고 하는 말에 환자와 가족들은 위로를 받는다.

그렇게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위로하고 하루 이틀 정성껏



전진상의원 45주년을 기념해 발간한 「전진상에는 유쾌한 언니들이 산다」.

보살피고 나면 환자들의 표정부터 달라진다.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느끼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환자들이 의료진을 찾는 횟수가 급격히 줄어든다. 의료진도 당장의 증상 완화를 위한 투약과 처치가 오히려 불필요하다면 굳이 처방하지 않고 환자와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한다. 그렇게 환자와 가족, 의료진이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며 함께 나머지 생을 충실히 살아간다.

어느 날 한 환자가 회진하는 배현정 원장에게 '고백할게 있다'며 붙잡았다. 잠깐 놀란 그에게 환자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지금이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해요."

가난하고 힘든 이웃을 향한 사랑과 헌신

"환자들이 제 인생의 스승이에요. 인생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으니 우리 모두 다 똑같은 길을 갈 거잖아요. 환자들이 저보다 앞서 그 길을 가시는데, 하루하루 그분들이 살아가시는걸 보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늘 배우게 돼요. 그래서 호스피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현정 원장은 우리 사회의 안락사 논의에도 주목하고 있다.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하게 살아갈 방법이 있다면, 고통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생을 포기하는 비극도 줄어들리라 믿기 때문이다. '치료는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지 고통 받는 사람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의사로서 그의 신념이다.

가난한 이웃, 병든 이웃들과 평생을 함께한 배현정 원장, 5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가난한 이들 속으로 들어가라'는 전진상의원의 설립 정신이 생생히 살아 있다. **글 편집부**